

분단이 할린 상흔의 자리에 상생과 협력이 피어나고 있었다

이봉기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독일-체코와 독일-폴란드 접경지의 민간단체들이 EU 및 정부의 예산 지원 아래 직접 사업주체가 되어
접경지 주민들의 생활수준 및 환경을 개선하고 있었다. 미래 행정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주민 자치행정을 통해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함께 사업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협력관계를 통해 경제적 잠재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점이 매우 인상 깊게 다가왔다.



01

평화문제연구소와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은 독일이 통일되던 1990년에 통일독일 현장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해 현재까지 지속해오고 있다. 필자는 독일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과한(?) 편이다. 독일통일에 대해 배운다는 것은 아무리 지나쳐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독일 통일에 대해 배운다고 하면, 분단에 처한 우리가 통일의 선택으로 그렇게 오래도록 관심을 갖고 연구했는데 또 배울 것이 남았는지 반문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어제 배운 지식과 오늘 배운 지식이 같은 내용일지라도 본인에게 와닿는 질적 내용은 다르다는 것이다.

2018 통일독일 현장연수는 2018년 11월 26일 서울을 출발하여 12월 5일 돌아오는 8박10일의 비교적 긴 일정이었다. 한국 측 참가자는 총 6명이었고 함께 움직이기에 적지도 많지도 않은 적당한 인원으로 팀워크 유지에도 적절했다. 통일독일 현장연수의 내용은 독일의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지역사회의 변화가 주된 주제였다. 매일 오전 8시경 일정을 시작해 오후 9~10시까지 진행된 강행군이였다. 일정 이후에는 그날 연수 내용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토론을 통해 교육내용을 반추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생각을 교류하며 이해의 폭을 넓혔다.

2018 통일독일 현장연수를 기관 및 현장의 방문으로 구분해 의미와 함의를 되짚어 봤다. 이번 연수의 첫 일정은 독일 뮌헨에 있는 한스자이델재단 본부에서 시작되었다. 한스자이델재단이 북한과 진행하는 사업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는데, 한국 측 참석자들에게 큰 울림을 준 것은 한스자이델재단의 한국사무소 대표인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의 언급이었다. 젤리거 대표는 다양한 사업을 설명하며 “북한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는데 남북대화나 교류협력 사업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가져야 할 기본적 태도를 대변하는 말이였다. 정작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일정 내내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북한은 동등한 파트너” ... ‘우리는 어떻게 대했나?’

이후 베를린에 소재한 한스자이델재단 지역사무소를 방문하였을 때는 독일 정교육의 주요한 합의인 ‘보이텔스바흐의 원칙’을 둘러싸고 참석자 간 그리고 알렉산더

01 구동독 지역이었던 라이프치히의 크리스마스 시장 풍경 02 한스자이델재단 본부(뮌헨)에서 진행된 간담회 03 유로지역 비아드라나 사무소를 방문하다



02



03

볼프 재단 베를린사무소 대표 간에 논쟁과 답변이 있었다. 교사가 자신의 가치관을 학생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 보이텔스바흐의 원칙 중 하나인데, 학교 외부에서 편향된 가치관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가 너무 소극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볼프 대표는 이에 대해 학생들에게 하나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 것을 보고 난 후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사과, 오렌지, 포도 등 다양한 맛을 지닌 주스를 마셔보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설명이었는데 결국 진리는 누구도 독점할 수 없고,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도 시간과 함께 변화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생각을 강요한다는 것의 무모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국가사회주의를 경험한 독일, 그것도 독일 국민들의 다수가 나치를 선택하였다는 뼈저린 과거의 실수를 경험한 입장이기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강조하는 원칙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한스자이델재단이 마련한 프로그램에서 독일 통일이 가져온 지역사회의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되돌아 볼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모두 독일 통일이 가져온 변화지만, 하나는 지역 내부의 발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의 외연이 확대된 결과였다. 우선 바이에른주 환경부를 방문하여 그린벨트(그뤼네스 반트, Grünes Band)의 보존 관리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그뤼네스 반트'는 과거 동서독 국경지역 1,393km를 따라 폭 50~200m로 형성된 자연보호구역이다. 폭 50~200m 사이에 1천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이렇게 좁은 폭에도 다양한 동식물군이 보존될 수 있다면 남북한 경계의 폭 4km에 이르는 비무장지대에는 얼마나 많고 다양한 동식물군이 살고 있을지에 대한 생각에 이르자, 기대와 함께 묘한 감동이 밀려 왔다. 남북의 경계가 우리에게서 과거 비극의 역사였지만 자연은 이와 무관하게 계속 연결되어 희망의 역사를 만들고 있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독일의 그뤼네스 반트 사업이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에 의해 추동되었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뤼네스 반트는 자연보호 이외에도 아픈 분단의 역사의 현장으로 기억됨으로써 이러한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살아 있는 교육의 현장이 되고 있었다. 나아가 문화 및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분단의 기억과 교육 그리고 친환경적 발전 방향 측면에서 남북 접경지대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깊은 감흥을 받은 시간이었다.



동베를린 지역에 위치한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민간 중심으로 성공한 그뤼네스 반트 ... DMZ는?

오버프랑켄은 우리에게서 바그너 음악축제로 알려진 바이로이트를 수도로 하는 행정관구다. 우리를 반갑게 맞은 토마스 앙겔 부행정관이 오버프랑켄의 통일 이후 경제 발전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인구이동, 노령화 등으로 1980년대 경제가 어려웠으나, 그동안 섬유와 도자기에서 기계 및 자동차 부품으로 전환하는 산업의 구조조정에 성공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실업률 11%에서 현재는 3% 수준으로 완전 고용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한다. 특히 통일 이후 동독 지역과 동유럽을 잇는 교통인프라가 확충된 것도 지역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설명했다. 질의 응답 이후 앙겔 부행정관은 행정관구가 자리잡고 있는 1904년에 완공된 유서 깊은 건물의 내부

독일 연방하원(제국의회 건물)을 방문하다.





한스자이델재단 베를린사무소를 방문한 참가자들

도 안내해 주었다.

물론 독일 통일 이후 오버프랑켄, 드레스덴, 라이프치히처럼 발전한 지역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었다. 우리가 방문했던 동독 지역의 프랑크푸르트 오더(옛 서독 지역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암마인과는 다른 도시)가 그러하였다. 프랑크푸르트 오더는 통일 이후 주요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해체되면서 실업률이 치솟았고 이에 따라 인구 유출과 함께 출산율도 감소하여 1988년 8만8천명에서 현재는 2만5천명이 감소한 6만3천명의 도시로 축소되었다. 프랑크푸르트 오더에 소재한 비아드리나(Viadrina, 라틴어로 '오더강에 있는'을 의미) 사무소를 방문하였을 때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도시의 컨셉과 맞게 30대의 시장이 우리를 맞아 주었다.

유로지역 비아드리나는 프랑크푸르트 오더 등 독일 지역과 수비체 등 폴란드 지역의 친선협력을 도모하는 민간기관이다. 우리에게 생소하고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사업들이 앞서 방문한 유로지역 에그렌시스(Egrensis)와 더불어 행해지고 있었다. 독일-체코와 독일-폴란드 접경지의 민간단체들이 EU 및 정부의 예산 지원 아래 직접 사업주체가 되어 접경지 주민들의 생활수준 및 환경을 개선하고 있었다. 나아가 협력관계를 통해 경제적 잠재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점이 매우 인상 깊게 다가왔다. 미래 행정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주민 자치행정을 통해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함께 사업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교류·협력하는 과정을 직접 보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총칼을 겨누었던 주민들이 이제 다시는 서로 상대에게 총부리를 겨눌 일이 없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통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는 12월 1일 토요일에 도착하였기에, 주말에는 베를린과 포츠담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였다. 포츠담 선언과 협정이 체결되었던 체첼리언호프에 둘러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 관한 역사를 공부하였다. 역사 공부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주독 한국대사관의 노력으로 체첼리언호프 오디오 가이드에 한국어가 포함된 덕분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했다. 이외에도 포츠담 국가안전부 감옥, 베를린장벽 박물관, 마리엔펠데 동독이탈주민 수용소 등도 방문하여 독일 분단의 역사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특히 토요일 아침에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준 독일 경제에너지부 신연방주 담당관실의 고틀프리트 콘첸도르프(G. Konzendorf) 박사로부터 독일 통일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콘첸도르프 박사는 현재 구동독 지역(신연방주)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구서독 지역 대비 73.2%로 지난 10년간 동서독 격차가 4.2% 감소하였다고 하며, 속도는 완만하지만 분명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향후 두 가지 차원, 즉 구동서독 지역의 경제적 격차와 사회 및 정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덧붙였다.

주민자치행정 통한 협력으로 접경지 생활환경 함께 개선해

통일독일 현장연수의 마지막 날인 12월 3일에는 독일 연방의회를 방문하여 한독의원친선협회 독일 측 의장인 카타리나 란트그라프(Katharina Landgraf) 의원을 만나 독일의 대북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을 기회도 가졌다. 이외에도 뫼들라로이트 국경박물관, 동독 10월 혁명의 발상지인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 동독 역사박물관, 동독 국가안전부 박물관 등을 방문하여 분단과 통일 역사의 기억이 서린 현장에서 교육이 이어졌다.

이번 통일독일 현장연수에서 다시금 확인한 것은 같은 내용을 함께 듣고 보더라도 이에 대한 생각은 모두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자신들이 형성해 온 가치관의 차이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식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늘 발생할 수 있다. 2018 통일독일 현장연수에 참가한 인원들은 매일 보고 들었던 현장의 모습을 두고 우리의 통일 문제와 연결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내었다. 민감하고 논쟁적인 이슈가 주제로 올라올 때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통일의 길이 바로 이러한 과정처럼 진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